

# 꼭 닮은 70m 질주 원더골... '금호고의 손흥민' 엄지성

고교 축구리그 왕중왕전 천안제일고와 결승전 환상골 화제 손흥민이 톨모델... 영상 보며 몸의 자세·볼의 궤적 등 훈련

광주 금호고의 공격수 엄지성(2년)이 손흥민(토트넘)의 '원더골'로 당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엄지성은 지난달 25일 천안제일고와의 2019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4강전에서 손흥민 못지 않은 환상적인 골로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역시 금호고 페널티 지역 앞에서 공을 잡은 엄지성은 재치 있는 드리블로 상대 선수들을 몰고 골대 앞으로 달려갔다. 12번의 볼터치 끝에 70여m를 돌파한 엄지성은 이어 슈팅을 날리며 골망을 흔들었다. 드리블에서 골까지 12초 만에 이뤄졌다. 손흥민의 '원더골'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골 장면이었다. 방향만 다르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질주해 오른쪽으로 오른쪽 골대를 뚫었고. 엄지성은 오른쪽 측면을 뚫고 왼쪽 골대를 뚫었다.

엄지성은 "주변에서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골이라고 말을 해주셔서 뿌듯하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언급될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영광이다"고 웃었다. 이어 "옆으로 치다 보니까 수비가 뺏기 어려워 해서 계속 공을 살려 골대까지 갔던 것 같다. 골키퍼는 오른쪽으로 때릴 줄 알았을 것이다. 왼발도 똑같이 오른쪽처럼 슈팅 때릴 수 있어서 왼발로 쉽게 넣었다"며 "공을 넣고 나서 (최수용)감독님께서 호응하라는 소리밖에 안 하셨다"고 웃었다. 사실 손흥민은 엄지성의 톨모델이다. 이리동산초 3학년 때 엄지훈(금호고 3년)과 축구를 시작한 엄지성이 처음 좋아한 축구 선수는 정성룡(가와사키)이다. 2010 남아공월드컵을 보면서 정성룡 같은 골키퍼가 되는 꿈을 꿔다. 하지만 키가 작아서 골키퍼를 포기한 그는 손흥민을 교

과서 삼아 실력을 키우고 있다. 엄지성은 "손흥민 선수의 영상을 보면서 개인 훈련 시간 때 연습을 한다. 안으로 쳐서 왼발로 잡는 기술을 가장 많이 연습했다. 자세와 궤적을 많이 본다. 어떻게 그 각과 궤적이 나올까 생각을 한다"며 "왼발슛이 가장 부럽다. 손흥민 선수의 왼발을 뺏어오고 싶다. 또 개인훈련과 몸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웃었다. 오른쪽잡이인 엄지성은 손흥민을 보면서 왼발의 힘을 키웠다. 엄마도 그의 왼발을 만들어준 분이다. 엄지성은 "어렸을 때 엄마가 연습할 때 왼발로만 하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잘 안 됐다. 내 발인데 왜 안 되냐 짜증이 나서 더 연습하게 됐다"며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공을 넣을 때마다 부모님께 하트 세리머니를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엄지성은 앞서 U-17월드컵을 통해서도 유명세를 탔었다. 지난 10월 브라질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 아이티전. 엄지성은 전반 25분 오른쪽 측면

에서 얻은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골대를 겨냥, 골키퍼 키를 넘는 환상적인 프리킥을 만들었다. 브라질의 호나우지뉴가 잉글랜드와의 2002 한일 월드컵 8강전에서 만들어낸 프리킥골을 닮은 멋진 골이었다. 슈팅이 강점이지만 스피드는 엄지성에게는 아쉬움이다. 손흥민과 같은 폭발적인 스피드는 부족하지만 대신 그는 순간 스피드를 키우기 위해 맞춤형 파워 웨이트를 하고 있다. 또 드리블 실력으로 부족한 스피드를 채우고 있다. 그는 내년에는 3학년이 되어 팀을 이끌어야 한다. 친구 같은 형과 처음 떨어져 축구를 하게 됐고, 사람들의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엄지성은 부담감을 이겨내고 큰 선수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다. 엄지성은 "큰 선수들은 다 그런 부담을 이겨내고 되는 것 같다. 올해 많은 걸 이뤄지만 이제 3학년이 되기 때문에 우선 프로를 목표로 준비를 하겠다. 그다음에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베트남은 지금 '박항서 홀릭'



"한국 사랑해요" 베트남 22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SEA 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우승한 뒤 태극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 대표팀은 이날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3-0 대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동남아시아컵 결승전 인도네시아에 3-0 압승 60년만에 첫 금메달... "은 국민 황홀" 언론 대서특필 베트남 문광부 포상금 5000만원 등 포상금 쇄도

베트남 축구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또 한 번 마법 같은 우승을 베트남에 선물했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 대표팀이 10일 필리핀 마닐라 리살 기념 경기장에서 열린 동남아시아(SEA) 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를 3-0으로 압승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베트남은 SEA 게임 축구가 처음 시작된 1959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SEA 게임은 베트남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11개국이 참가하는 종합 스포츠 대회다. 최근 베트남은 SEA 게임 축구 종목에서 특별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2015년에는 동메달에 머물렀으며, 2017년에는 조 3위로 예선 탈락했다. 결승 무대에 오른 것도 10년 만의 일이었다.

앞선 대회와 달리 이번 경기는 달랐다. 베트남 선수들은 '골잔치'를 열며 우승까지 직행했다. 하득진이 이번 게임에서 총 8골을 몰아넣으며 인도네시아 오스발도와 함께 공동 최다골 기록을 달성했다. 하득진은 준결승전에서 캄보디아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성공하며 두각을 보였다. 또 응우옌 티엔 린도 6골을 넣으며 뒤를 이었다. 오랜 침체 끝에 터진 값진 우승인 만큼 베트남 내 반응도 뜨겁다. 베트남 일간지 '베트남뉴스'는 11일 응우옌 응옥 티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상금 10억동(5000만여원)을 베트남 축구대표팀에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또 베트남 축구협회(VFF)가 30억동(1억5000

	부임 전	후 (2017년 10월 부임)
동남아시아 게임	1959년 우승 ▶ 60년 만에 우승 (2019년)	
피파 랭킹	121위 ▶ 94위	
AFC U-23	본선 진출 ▶ 준우승	
아시아게임	16강 ▶ 4위	
스즈키컵	2008년 우승 ▶ 10년 만에 우승 (2018년)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현재 3승 2무 0패 (G조 1위)	

2019.12.10 현재 기준 /연합뉴스

만여원)을 제공했으며, 각종 민간기업이 20억동(1억여원) 이상을 후원해 70억동(3억6000만여원) 이상의 포상금이 모였다고 전해졌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사상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25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았다. 또 지난해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을 때도 10억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MLB 투수 계릿 콜 9년 3869억에 양키스행

역대 투수 최고...FA 2위

계릿 콜(29)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역대 투수 최고액인 9년 3억2400만달러(약 3869억원)에 뉴욕 양키스와 입단 합의했다. 이번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로 꼽혔던 콜은 영입전이 치열해지면서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금액을 제시받았다. AP통신은 11일 "콜이 역대 투수 최고액에 양키스와 계약 성사를 앞냈다.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기록 달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인 10일,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는 7년 2억4500만달러에 워싱턴 내셔널스와 잔류 계약을 했다. 콜의 기록 달성은 시간문제였다. 콜은 투수 최초로 총액 3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끌어냈다. '약의 제국' 양키스가 콜 영입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슈퍼 에이전트 스킷 보라스가 수완을 발휘했다. 지난해까지 메이저리그 FA 투수 최대 규모 계약은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2015년 말 보스턴 레드삭

스와 7년 계약하며 사인한 2억1700만달러다. 스트라스버그가 이를 뛰어넘었고, 콜은 투수 사상 첫 '3억달러의 사나이' 등극을 예약했다. 콜은 계약을 마무리하면 메이저리그 역대 FA 전체 2위에도 오른다. 브라이스 허퍼는 2019시즌을 앞두고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13년 3억3000만달러에 계약했다. 실제 메이저리그 최대 규모 계약은 마이크 트라웃가 올해 3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한 12년 4억2650만달러다. '평균 연봉'은 콜이 전체 1위로 올라선다. 콜은 9년 동안 평균 3600만달러(약430억)를 받는다. 잭 그레인키(현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2016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6년 2억65만달러에 계약했다. 연평균 3441달러를 받는 조건이다. 연평균 수령액 1위였던 그레인키를 스트라스버그(연평균 3500만달러)가 넘어섰다. 콜은 평균 3600만달러를 받아, 비FA 최고액의 트라웃(연평균 3554달러)마저 제쳤다. /연합뉴스